

미러볼이 돌아가는 뉴월드 안. 무대에 선 제인은 청중을 바라보고 있다.

제인 : 어, 오늘 왜이렇게 많이 왔대?

제인 : 오늘은 노래하기 전에 특별히 제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. (청중을 둘러보며) 괜찮죠?

청중 : 네!

제인 : 저는 태어날 때부터 진실하지 않았어요. 제 입에서 처음 나온 말은 거짓말이었습니다. (고개를 끄덕인다.) 네, 제 얘기는 거짓 역사의 기록이라고도 할 수 있죠.

청중 속 소현은 쓰고 있던 모자를 벗는다.

제인 :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진실이라고 믿죠. 그렇게 제 존재는 언제나 거짓이었습니다. 입만 열면 거짓의 구취가 난다고 손가락질 받았죠. 뭐, 전 어찌할지 몰랐어요. 어찌하면 사람들 곁에 머물 수 있는지 방법을 몰랐죠.

제인 : 특히나,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제 곁을 떠났어요. 그들 중 몇 명은 제게 이렇게 말하더라구요. '넌 영원히 사랑받지 못할거야. 왜냐하면 넌 사랑받고 싶어서 누군갈 사랑하거든?' 그렇게 저는 여전히 혼자인 채로 살고 있습니다. 제 진심이 언젠가는 전달될 거라고 믿으면서요. (쓸쓸한 표정을 짓는 제인.)

제인 : 물론 이 외로운 삶은 쉽게 바뀌지 않겠죠? 불행도 함께 영원히 지속되겠죠. 뭐, 그래도 괜찮아요. 오늘처럼 이렇게 여러분들이랑 즐거운 일도 있으니까 말이에요. (미소를 짓는다.) 어찌다 이렇게 한번 행복하면 됐죠. 그럼 된거예요.

제인 : 자, 우리 죽지 말고 불행하게 오래오래 살아요. 그리고 내년에도, 내후년에도 또 만나요. 불행한 얼굴로. 여기 뉴월드에서.